



KOTRA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워싱턴 포커스

- (규제) 美 5개 노조, 중국의 조선업 및 해양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 청원 1
- 전미철강노조 등 5개 노조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해양·물류·조선 분야에 대해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 경제통상 동향

- (공급망) 美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 잔해 제거 작업 돌입 3
- (규제) 바이든 행정부, 대형차량의 배출가스 허용치 기준 강화 3
- (IRA) 美, 35개 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IRA 투자세액공제 40억 달러 할당 4
- (경제) 美 무역대표부, 2024년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표 5
- (TTC) 미국-EU 제6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6

⚖️ 의회법안 동향

- 휴재(4월9일까지 미 하원 휴회) 6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7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8

📅 워싱턴 주요일정

4.2(화)	• 2월 신규일자리 건수(Job openings)
4.3(수)	• 3월 美 S&P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S&P U.S. services PMI(final))
4.4(목)	• 3월 4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규제) 美 5개 노조, 중국의 조선업 및 해양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 청원

1. 개 요

□ 미국 노조,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조선업 불공정 관행 조사 촉구

- 전미철강노조(USW) 등 미국 5개 노조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해양·물류·조선 분야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 노조는 “중국 정부가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전 세계 항만 및 물류 시설망을 구축해 미 조선 산업에 피해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주장
 - 주요 내용으로 ①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건조 선박의 항만세 부과 ② 미국 조선업 촉진을 위한 지원 기금 조성 ③ 미국산 상선 수요 창출 대책 마련 ④ 중국의 항만 및 물류 인프라 확산 제재 ⑤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언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와 USTR은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국 제조업 재건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청원의 면밀한 검토 강조

〈무역법(Trade Act) 301조〉

※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방지

- 1974년 통상법 제301조로 2019년 트럼프 정부가 개시하고, 바이든 정부가 계승 중인 대중 관세의 근거법
- 무역협정으로 성립된 미국 권리가 부정당하거나, 외국의 법률·정책·관행으로 미국의 이익 침해 또는 미국의 상업활동에 부당한 제재가 발행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은 상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

2. 상 세

□ 미-중 간 무역 갈등, 조선 및 해운업 분야로 확대 양상

- 미국 조선 산업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산업 계획 △막대한 국가 지원 △해양 및 물류 인프라 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

- 노조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계획 ‘중국 제조(Made in China) 2025’를 통해 조선업을 10대 우선 분야로 선정하는 등 대규모 부양정책의 불공정 개입 주장
- 중국의 해운 디지털플랫폼 로진크(LOGINK)를 통해 각국 국가안보·경제적 이익 관련 민감한 데이터수집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 리스크 상승에 따른 우려 제기
- 전 세계 60% 이상의 항만과 터미널*은 중국 기업(국영기업)이 자금 조달, 건설 및 운영 등을 관할하고 있어 무역 영향력 상승, 항만·물류 통제 등의 위험성 경고
 - * 96개의 외국 항구에서 중국 기업이 하나 이상의 터미널을 소유 또는 운영 중
-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에 있어 조선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조선업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조치 촉구**
 - '75년 미국의 조선 산업은 생산 측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나, '22년 전체 생산량 대비 19위(1% 미만)로, 중국의 생산량(46.59%)과 극명한 차이를 보임
 - USW는 미국 내 조선소 폐쇄로 인한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해운 및 조선업 부문의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 미국 상선 건조 시장을 재건하여 해상 수송 능력을 증진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것을 강조

3. 현지 반응

□ 중국 조선업 조사 본격화 시 미-중 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 전망

- **바이든 행정부, 해양·물류·조선 분야 중국 위협에 대한 경각심 고취**
 - 현지 언론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이번 5개 노조의 청원을 두고 노동자 표심을 고려한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조선업 제재 강화 가능성 관측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국영기업(ZPMC)의 항만 크레인 관련 해양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2.21) 하는 등 강경 기조 고수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인사이드트레이드(3.25), 파이낸셜타임스(3.12)

(공급망) 美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교량 잔해 제거 작업 돌입

- (개요) 교량 붕괴 잔해 제거 작업을 위한 임시 통로 개통 등 여파 최소화 노력
 - 지난 3월 26일 컨테이너선 충돌사고로 붕괴된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의 잔해 제거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당국은 볼티모어 항구 접근을 위한 임시 통로 마련 및 우회 화물 흡수를 위한 미 동부 해안 항구 운영 수정 등 운행 재개 조치 진행
- (상세) 운송 일정 차질 최소화 위해 인접 항구의 접근성 개선 및 철도 서비스 확장
 - 현재 인양 작업을 위한 임시 통로를 개통하였으며 추가 통로 마련 계획, 대형 화물선 및 컨테이너선 통과가 가능하기까지 추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추가 화물이 예상되는 뉴욕항과 뉴저지항 등 인근 항구들은 운송 회사의 신속한 접근 방안을 마련 중이며 주요 철도 서비스도 확장 운영 시행
 - 뉴욕 버지니아 게이트웨이는 팬데믹 피크 대비 20% 여유 있어 병목 현상 없을 것으로 전망
 - IMF 화물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볼티모어 항을 떠난 화물선의 주요 목적지는 △버지니아주 노스포크(26%)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9.8%) △뉴저지주 뉴욕(9.7%)으로 관찰
 - 공급망 플랫폼 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항구 우회에 따른 배송 지연은 5일로 예상
 - 전문가들은 단기보다 육로 우회경로가 연장되어 발생하는 장기적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

- | | |
|-------|------------|
|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지연 |
| ▪ 자료원 | 블룸버그(4.1) |

(규제) 바이든 행정부, 대형차량의 배출가스 허용치 기준 강화

- (개요) 美 환경보호국(EPA), 대형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치 강화 규정 발표(3.29)
 - 환경보호국은 대형상용차*(디젤 구동 트럭 및 버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60% 감소를 목표로, '27~'32년식까지 강화된 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
 - *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27년식부터 '32년식까지 대형 트럭(배달 트럭, 쓰레기 수거 트럭, 공공 유틸리티 트럭, 대중교통·셔틀·통학 버스 등) 및 트랙터(트랙터 트레일러)에 적용

- (상세) 최종 기준 강화로 중·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통해 ① '3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60%까지 감소 ② '55년까지 10억 미터톤 탄소 오염 저감 ③ 55,000톤의 스모그 오염 제어 전망
 - 새로운 규정은 제조사의 배출가스 제어 기술(△전기동력장치 △수소 전지 △연료 전지 △공기역학적 설계 △경량 소재 등) 선택에 대한 규제 요건이 완화된 저배출 기준 준수를 위한 대형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 규정 적용으로 '32년 경량 대형트럭(60%), 중형 대형트럭(40%), 대형트럭(30%)의 전기차 전환 예상
 - 반면, ① 트럭 및 엔진 제조업체 협회의 EPA 규정 약화 로비 시도 ② 트럭 업계 및 미국 석유협회 등의 소송 가능성 ③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 성명 발표 등 신규 EPA 규정에 대한 반발 예상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더힐(3.29), 미 환경보호국(3.29)

(IRA) 美, 35개 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IRA 투자세액공제 40억 달러 할당

- (개요) 美,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과 투자 촉진, 비용 절감 위한 세액공제 발표
 - 에너지부는 청정에너지 제조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적격 첨단에너지 세액공제(48C)* 프로젝트 선정, 최대 30%의 투자세액공제 제공
 - * Inflation Reduction Act(IRA)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Tax Credit(48C)
- (상세) 35개 주 100여개 프로젝트 선정, 2년 내 별도 인증 및 사업 개시 요구
 - 에너지부는 1차로 약 250건의 135억 달러 세액공제 요청 중 40억 달러 프로젝트 선정*, 개별 프로젝트는 48C 포털에 2년 이내 정보를 제출·인증, 2년 이내 사업 개시 필요
 - * 선정된 기업 및 프로젝트 정보는 정부의 인증 작업 이후에 공개될 전망
 - ▶ (제조 및 재활용/27억 달러) 청정에너지 및 청정수소 배치 관련 인프라, 케이블·변압기 등 그리드, 전기차 제조 지원,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응용 분야
 - ▶ (핵심광물 가공 및 정제/8억 달러) 청정에너지 전환 진전을 위한 전기 강판 응용 관련,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및 희토류 가공·정제 프로젝트 등

- ▶ (탈탄소화/5억 달러) 화학, 식품·음료, 펄프·종이, 바이오 연료, 유리, 세라믹, 철강, 건축 자재 등 여러 산업 부문에 걸친 전반적인 탈탄소화 조치 프로젝트
- 현지 언론은 향후 몇 달 내 2차 예산 할당 공지 및 콘셉트 페이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에너지부(3.29), 폴리τικο(3.29)(23.2.13), 48C 프로그램(링크)

(경제) 美 무역대표부, 2024년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표

- (개요) USTR, '24년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공개(3.29)
 - 동 연례 보고서는 美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무역 장벽에 관해 14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캐서린 타이 대표는 “그간의 연례 보고서가 주권국의 유효한 권리 행사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조치를 포함했으며 이는 본래의 발행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해 NTE 보고서에서 무역 장벽의 개념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변경
- (상세) 무역 장벽 개념 완화에 따라 디지털 무역 부문 기업들의 반발 가중
 - 당해 보고서는 무역 장벽에 대한 개념을 기존 ‘투자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모든 정부 조치’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축소
 - 디지털 무역 장벽 부분에 관한 항목이 축소 및 삭제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가 각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디지털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
 - 한편, 진보 단체들은 그간의 친경쟁적인 정책이 ‘빅테크’에 혜택을 주었으나 금번 NTE 개혁으로 소비자,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고 환영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지연
▪ 자료원	USTR(3.29), 인사이드(3.29)

(TTC) 미국-EU 제6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 (개요)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6차 회의가 벨기에에서 개최 예정(4.4-5)
 - 범대서양 무역과 신기술 분야 협력 및 반도체 공급망 확대 등 미국-EU 간 경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양국의 장관급 인사 5인이 의장으로서 주관
 - 유럽의회 선거(6월), 미국 대선(11월)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회의 개최
- (상세) 인공지능 및 6G, 반도체 공급망 등 협상 결과 발표 예정
 - △인공지능 평가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 △6G 비전 설정 △반도체 공급망 계약 연장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실천 원칙 논의 △핵심광물 협정 등 양국의 공동 이익 실현 및 협력 방안 논의
 - 부속서 내 청정에너지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핵심광물 협정 추진 내용 포함 예상
- (반응) 유럽과 미국, 양국 간 협정을 통한 혜택에 낙관적
 - 예비 공동 성명서는 TTC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대서양 간 협력 및 지난 대화 성과 강조
 - 유럽의회 통상위원장은 TTC를 ‘제도화(institutionalize)’하고 장관급 회의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 기구 추가 희망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정수나
▪ 자료원	인사이드(3.29), 인사이드(4.1)

⚖️ 의회법안 동향

※ 미 하원 휴회로 인해 쉽니다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Tesla's Quarterly Deliveries Fall for First Time Since 2020 (고전하는 테슬라...2020년 이후 최초로 분기 인도량 감소해)</p>
	<p>2020년 이후 최초로 테슬라의 전년 동기 대비 차량 인도량이 감소하며, '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실적을 기록. 이는 테슬라의 성장 전망에 악재로 작용해 주가는 5% 급락.</p>
The Washington Post	<p>What to know about Florida abortion-ban rulings and how voters will have a say (플로리다의 낙태금지법, 11월 투표사항은?)</p>
	<p>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주헌법 상 낙태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고 판결. 오는 11월에는 주헌법 내 낙태권 명시 여부 투표 예정.</p>
The New York Times	<p>Biden Talks to Xi About Conflicts, From Ukraine to the Pacific (바이든·시진핑, 글로벌 현안 관련 전화회담)</p>
	<p>바이든 대통령은 2일 오전 시진핑 주석과 러-우사태·아-하사태·북핵이슈 등 각종 글로벌 현안 관련 통화. 본 통화는 열린 재무장관의 방중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블링컨 국무장관도 곧 방중 예정.</p>
CNN	<p>Half a million California fast food workers will now earn \$20 per hour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근로자 시급은 최소 20달러)</p>
	<p>미국 내 60곳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로자 대다수가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급이 20달러로 인상돼.</p>
USA Today	<p>Who is José Andrés? What is the World Central Kitchen? What to know after deadly airstrike (공습당한 월드 센트럴 키친과 호세 안드레스는 누구?)</p>
	<p>이스라엘군이 국제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을 공습하며 소속 지원 7명이 사망. 설립자 호세 안드레스는 이스라엘정부의 무차별 살인을 비난하며 가자지역 운영 일시 중단 발표.</p>

* 미국 동부시간 4월 2일 17시 기준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4-08	2024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03월
US24-07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 주요 성과 및 현지 반응	2024.03월
US24-06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2주년 주요 성과 및 전망	2024.03월
US24-05	최근 美/中/멕시코 무역·투자 동향 분석과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2024.02월
US24-04	제5차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개요 및 현지 반응	2024.02월
US24-03	백악관 인공지능(AI) 행정명령 후속조치 주요내용 및 관련 동향	2024.02월
US24-02	주요기관이 바라본 지정학과 무역의 상관관계	2024.02월
US24-01	미국 정치권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강화 동향과 시사점	2024.01월
US23-32	미국 연방정부 배터리 산업 육성 인센티브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2023.11월
US23-31	백악관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	2023.11월
US23-30	2024년 미국 대선 전망,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10월
US23-29	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섣다운 전망	2023.10월
US23-28	미국 정부의 대중 투자규제 동향 및 시사점	2023.10월
US23-27	미국 연방정부 섣다운 가시화 속 현지 반응 분석	2023.09월
US23-26	신규 회계연도 임박, 美 의회 예산안 입법 동향	2023.09월
US23-25	2022년 주요국 해외투자 동향(UNCTAD 보고서)	2023.09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16 (2024.2.7)		
코인사-15 (2023.12.27)		